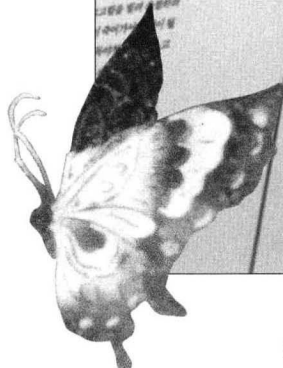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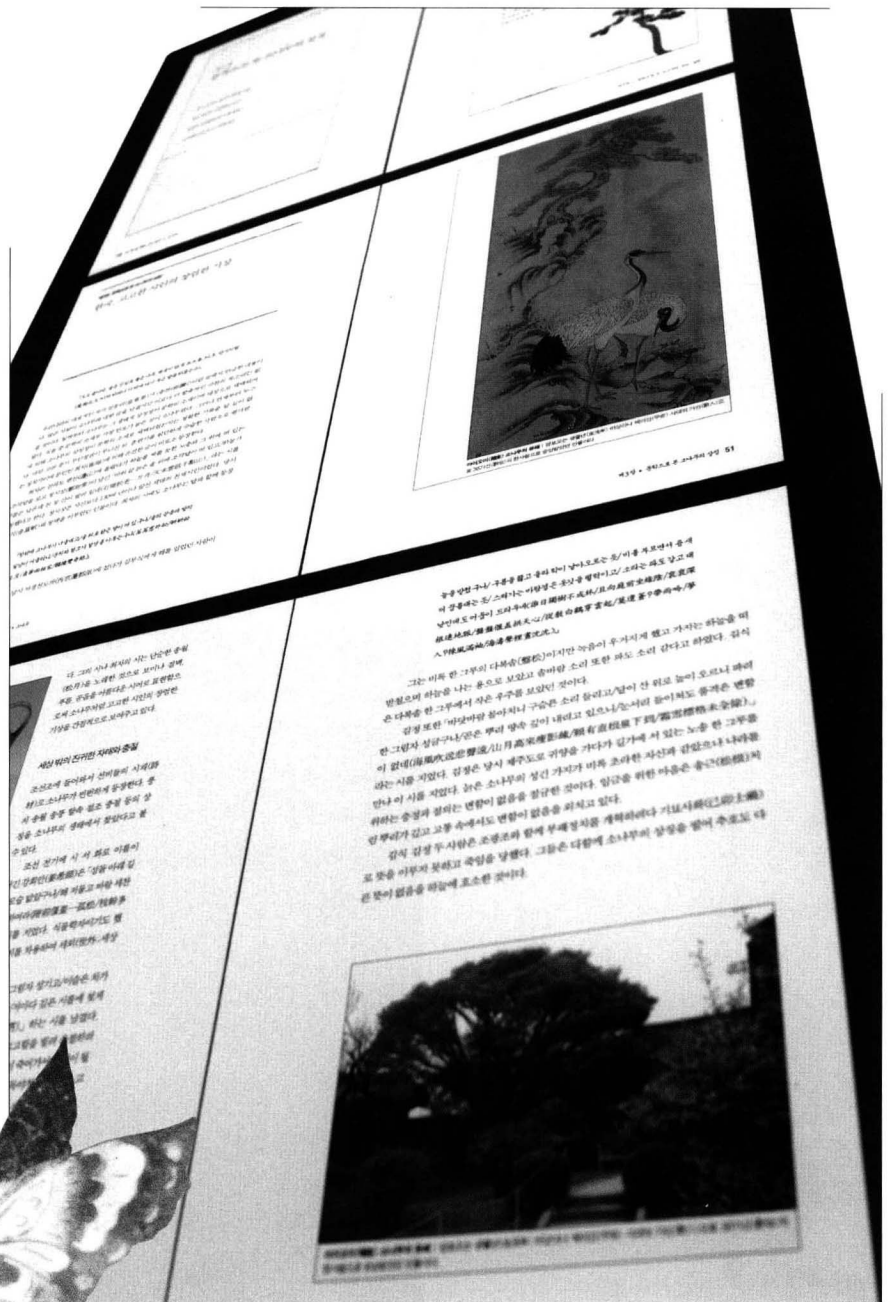


유교와 불교 그리고 한지는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에 뿌리내리면서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다. 하지만 좀더 들여다보면 한·중·일 동북아시아 각국은 이러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문화적 특징을 드러낸다. 세 나라는 문화적 차이 말고도 역사적으로 긴장과 협력관계를 거듭하며, 호오好惡의 인과관계를 지속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북핵문제, 미·중간 패권 경쟁, 일본의 재무장, 영토분쟁 등 현대의 다양한 동북아시아 현안들도 이런 역사적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고 해도 무리는 아니다.

동북아시아 열어갈 '세한삼우歲寒三友의 DNA 분석' 생각의나무의 《매화》(2003년 10월)
 월)에 이어 도서출판 종이나라에서 출간된 '한·중·일 문화코드 읽기' 시리즈 《소나무》의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세 나라 문화의 'DNA'를 쫓아가다보면 서로의 동질성과 차이를 이해하게 되고 이러한 이해를 통해 문화뿐 아니라 경제와 정치에 있어서도 평화로운 동북아시아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나아가 새롭게 다가오는 동북아시아를 준비하면서 '수레에 실린 짐이 아닌 수레를 끄는 한 마리 말이 되자'는 것이 이 시리즈의 바닥에 깔린 기획의도다.

세나라의 동질성 발견, 이해의 폭 넓혀

종이나라. '한중일.문화코드.읽기' 시리즈



●삼국의 필자 수소문.

‘제 나라 문화상징 비교, 난해한 작업’

중이나 나라 최홍순 기획실장(사진)은 “우연한 기회에 생각의나무에서 시리즈를 이어서 진행할 출판사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마침 내가 잘 할 수 있는 분야고, 중이나 나라로서도 본격적인 출판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주저 없이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작업을 진행해 보니 여느 단행본의 두 배 이상 드는 제작비뿐 아니라 세 나라 문화의 상징을 비교하는 일 자체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매화》가 나올 때도 기획 1년, 제작 1년 해서 2년의 산고가 있었다. 《소나무》는 2004년 3월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중·일 삼국의 상징문화를 동시에 소개할 뿐만 아니라 23명의 공동필자가 참여하다보니 원고의 질을 통일시키는 작업도 쉽지 않았다.

또 국제적인 기획인 만큼 중국과 일본의 필자를 참여시키는 게 중요했지만 막상 일본과 중국에서 원하는 원고를 써줄 만한 필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일본의 중견 출판사인 신조사의 관계자는 이어령 선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획이라고 감탄하며 《매화》(중이나 나라는 생각의나무에서 출간된 매화도 새로운 기획에 맞게 고쳐서 다시 펴낼 예정이다)편이 나오면 일본에서도 출판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중국측 학자들 역시 훌륭한 기획이라고 감탄하면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자기들로선 이러한 주제를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통재현 넘어 ‘미래지향적’ 소재 적극 반영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세부적인 대목에선 《매화》와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먼저 앞의 기획이 사군자四君子의 상징을 중심으로 다룬 예정이었다면 중이나 나라는 범위를 대폭 넓혔다. 한·중·일을 상징하는 세한삼우歲寒三友인 소나무, 대나무, 매화로 그 뼈대를 새롭게 세우고 이 외에도

동물인 십이지신十二支神인 그리고 직접적인 삶과 관련된 의식주 등 우리의 정신문화와 물질문화 전반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단지 전통을 느끼게 하는 소재선택에서 탈피해 젊은이들도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소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의도는 《소나무》에도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

“상징을 다룬다면 결론이 대부분 우리가 흔히 배워온 것으로 끝나기 마련입니다. ‘소나무 하면 절개대’ 라는 식이죠. 이러한 데서 오는 상상함을 거두기 위해 고문헌이나 학자의 연구실뿐만



아니라 일반 독자들이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책에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 소나무의 의미에 대해 젊은 사람들도 고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체도 기존과는 다른 것이어야 했다. 현재적인 의미를 담기 위해서는 중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굳이 사전을 들추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장이 되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어령 선생 기획...

유한킴벌리 문국현 사장 적극 지원

‘한·중·일 문화코드 읽기’에는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점이 두가지가 더 있다. 먼저 앞서 밝혔듯이 이어령 선생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령 선생은 문화계 실무자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다. 그만큼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실장은 이미 한 번 덴(?) 적이 있었다. 2000년 청주국제인쇄출판박람회 총괄 큐레이터를 맡을 때였다. 최실장이 밤새 준비한 기획안은 ‘일인지하’에 퇴짜 맞기 일쑤였다.

“자존심도 많이 상했죠. 고칠 건 고치고 아 니다 싶은 것은 그대로 반영해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속으로 조마조마해하며 선생님들과 함께 박람회장을 돌았는데 뜻밖에도 ‘정말 잘했다’고 그러시더군요. 당시 제 생각에 선생님은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여지를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다시 함께 일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그때 일을 꺼냈더니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최선을 다했겠냐’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는 유한킴벌리라는 기업의 참여다. 유한킴벌리는 1차적으로 12권이 나올 때까지 원고료와 자료수집비 등의 명목으로 권당 2,000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문국현 사장은 기획의 주체로서 초기 기획단계에서 1년간 실무자들과 머리를 맞대기도 했다. 유한킴벌리의 주주회사인 킴벌리 크라크사의 동북아시아 대표를 맡고 있는 문 사장로서는 서로 다른 동북아시아의 문화를 이해하고 화합을 모색하는 게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였기 때문이다.

최 실장은 “이 시리즈물은 결국 세 가지 문화적 모티프가 결합해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동양의 문화가 서양을 넘어서 시대를 이끄는 정신으로 자리잡기를 바라는 한 문화인의 뜻과, 동북아시아에 상생의 글로벌 경영을 모색하고 사회에 공헌하려는 기업정신, 그리고 가치 있는 책을 만들려는 출판인의 장인정신이 합쳐져 만들어낸 우리 시대의 값진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재 | 신동섭 기자 · 사진 | 박신우 기자